

2023-02-20 (2023-06호)

02월 20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역외 포지션 조정 일단락?... 한·미 금리차 변수 여부 주목

서울, 2월2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흐름을 주로 따르면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의사록 공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전후해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75-1,320원이다.

지난주 환율은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두 달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에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불과 2주 만에 90원 가까이 폭등하자 원화에 대한 시각도 급변했다. 연준 정책 전환(피벗) 기대를 업고 상대적 원화 강세를 외쳤던 목소리가 힘을 잃은 가운데 역외 투자자들은 원화 롱 포지션에 대한 급한 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환율이 당국 미세조정에도 1,300원대까지 급등한 데는 이 같은 역외들의 원화 포지션에 대한 손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역외들의 급한 포지션 조정이 일단락됐다면 금주 환율은 지난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 변동성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최종 금리 전망치가 5.25%~5.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한국시간 23일 새벽 공개 예정인 연준 2월 정책회의록을 통해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와 경기에 대한 연준 스탠스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또 한 번의 변동성을 경험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수위도 체크해야 할 변수다.

오는 23일에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 확대 리스크를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일부 해외 기관은 연준이 향후 3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보지만, 한은은 금리 인상 사이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미 금리 격차 확대 리스크를 염두에 둔 시장 경계감이 원화 약세 변동성을 자극할 것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한편, 지난주 원화 약세를 부추긴 재료로 이미 활용됐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금통위를 앞두고 상승 변동성을 대거 키운 환율은 금통위 이벤트를 전후해 또다시 보폭을 늘릴 위험도 열어둬야 할 듯하다.

이달 20일 기준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통해 외환 수급 추세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아울러 한은과 기

재부는 작년 말 국제대차대조표와 함께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발표된다.

한편, 연준이 주로 고려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주 후반에 나오는 만큼 금주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할 전망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2월20일(월)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9:00)
- 금융감독원: 원장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 면담 (16:00)
- 금융감독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인니 금융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 개최 (배포시)

2월21일(화)

- 관세청: 2.1~20일 수출입 현황
- 한국은행: 임시국회 업무보고
- 한국은행: 2023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기획재정부: 1차관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0:00)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11:00)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 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12:00)

2월22일(수)

- 한국은행: 2023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0:00)
- 금융감독원: 원장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 (10:40)
- 한국은행: 2022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참석 (12:00)
- 금융감독원: '22.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12:00)
- 통계청: 2022년 12월 인구동향·2023년 1월 국내인구이동 (12:00)
- 기획재정부: '22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12:00)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15:00)
- 금융감독원: 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15:00)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15:00)

2월23일(목)

- 한국은행: 2023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 금융감독원: 2022년 IPO 시장동향 분석 (12:00)
- 통계청: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연간지출 포함) (12:00)

-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3.2월) (13:3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14: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23~26일)

2월24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국회 본회의 (14: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23~26일)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2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물	2월		3.65%
2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물	2월		4.30%
2월21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월	-18.3	-20.9
2월2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2월		48.9
2월2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잠정치	2월		52.3
2월21일	18:00	유로존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2월	49.3	48.8
2월21일	18:00	유로존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2월	51.1	50.8
2월21일	18:00	유로존	S&P 글로벌 종합 PMI 잠정치	2월	50.5	50.3
2월21일	23:45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2월		46.9
2월21일	23:45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2월		46.8
2월21일	23:45	미국	S&P 글로벌 종합 PMI 잠정치	2월		46.8
2월22일	00:00	미국	기존주택판매	1월	4.05M	4.02M
2월22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 지수	2월		-6
2월22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서비스업 지수	2월		20
2월22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2월17일 주간		230.4
2월23일	22:30	미국	GDP 수정치	4분기	2.9%	2.9%
2월23일	22: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월13일 주간		194k
2월23일	22:30	미국	전미활동지수	1월		-0.49
2월24일	01:00	미국	캔지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2월		-4
2월24일	08:30	일본	CPI YY	1월		4.0%
2월24일	22: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1월		1.339M
2월24일	22:30	미국	개인소득 MM	1월	0.6%	0.2%
2월24일	22: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YY	1월		4.4%
2월25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	2월		66.4
2월25일	00:00	미국	신축주택판매	1월	0.616M	0.616M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2월20일 (월)

- ⊙ 휴장국가: 미국

2월21일(화)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월 비제조업 전망 서베이 (오후 10시30분)

2월22일(수)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월31일-2월1일 회의록 공개 (23일 오전 4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공동 개최 컨퍼런스서 인플레이션 관련 대담 참석 (23일 오전 7시30분)

2월23일(목)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주최 은행 전망 컨퍼런스 대담 참석 (24일 오전 0시50분)
- ⊙ 휴장국가: 일본

2월24일(금)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글로벌마켓 이니셔티브 2023 미국 통화정책 포럼서 패널 토론 참석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글로벌마켓 이니셔티브 2023 미국 통화정책 포럼서 연설 (25일 오전 0시15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2월24일을 앞두고 지난 주말 독일에 세계 각국 정상과 군부 지도자들이 모였다.

전쟁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전면적인 제재로 러시아는 세계 금융시장과 단절되었고, 상품과 에너지 흐름이 재편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했다.

러시아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민헌안보회의에는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이 모여 추가 대응을 논의했다.

⊙ G20 재무장관회의

2월22-25일 인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빈곤국 채무 탕감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어젠다는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을 위한 G20 공동 프레임워크와 암호화폐 규제다.

인도는 공동 프레임워크에 중간 소득 국가들을 포함시키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미국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진전은 더딘 가운데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차드, 에티오피아, 가나, 잠비아 가운데 차드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 상태다.

⊙ BOJ 새 총재 청문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지명자는 비둘기파지만, 투자자들은 그의 임기 중에 수익률 곡선 통제(YCC)가 종료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 시기가 관건이다.

우에다 지명자는 24일 중의원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 청문회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우에다가 변화를 서두르지 않으리라는 게 중론이지만, YCC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시장 왜곡도 두드러지고 있어 그에게 불리한 타이밍이다.

그밖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22일, 한국은행이 23일 금리를 결정한다.

⊙ 미국 소매업체 실적

4분기 어닝시즌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대형 소매업체 실적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와 주택 개량 소매업체 홈디포가 21일, 할인점 운영업체 TJX컴퍼니가 22일 실적을 발표하고, 로우스와 베스트바이의 발표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소매업체 외에는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제약회사 모더나가 대기 중이다. 레피니티브 IBES 데이터에 따르면 2월10일 기준 4분기 이익은 전년동기비 2.8%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 유럽 인플레이션과 주가

유로존이 침체를 피해 갈 수 있음을 신호하는 기업 심리 및 활동 회복으로 유럽 주가지수는 상승세지만, 아직 불안하다.

앞으로 발표될 구매관리자지수에서 신규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압력이 증가한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독일 국채 2년물 수익률은 이달 들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전방위 은행 마녀사냥과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선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2월16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해 11월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다양한 방안으로 은행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은행들이 서로 은행채 등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을 위시한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대란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개별은행의 자금운용에 직접 개입하며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었다.

돈줄 역할을 해야 할 은행들이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해 시중자금의 '블랙홀'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은행별로 수 조원씩 은행채 만기가 돌아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의 통제로 은행의 채권발행이 막히니 만기 순상환에 따른 추가 자금 조달 수요가 채워지지 못했다.

결국 발행시장을 통해 조달하지 못한 자금을 예금으로 충당하려다 보니 은행별로 유치 경쟁이 벌어졌고 이는 예금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금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몰리자 '역머니 무브'를 우려한 금융당국은 은행에 "예금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며 경고를 보냈다.

채권 조달 경로가 막힌 상황에서 연말까지 다가오니 진퇴양난이라는 은행의 읍소에 결국 금감원이 내놓은 해법이 은행채의 사모 발행이었다.

은행채 발행시장 참여자를 은행으로 한정하고 증권사 등 다른 기관들의 참여는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공모 발행이 아니니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은행들이 서로 채권을 사주니 만기 상황에 따른 차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사모 은행채를 적격담보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빚어지면서 시도는 좌초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공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한 공모 채권이 아닌 사모 형태의 은행채까지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포함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금융당국이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사모간에 발행한 채권이 신용대출의 형태를 가진다는 사실이 부인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은이 적격담보증권을 지정하는 건 결국 결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은행에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담보를 즉시 유동화해서 신뢰에 기반을 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사정이 급하다고 대출 성격의 사모사채까지 적격담보로 인정해버리면 결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적격담보를 지정하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아무리 정책이 선의에서 태동됐다고 해도 신용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할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는 식으로 집행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은행 제도 이해 없이 진행되는 여론몰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6일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은행권이 연간 수 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최근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의 상황을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정했다.

은행이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일부 명예퇴직자에게 10 억원까지 지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여론도 들끓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고조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지난해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폭리를 취했고 그렇게 얻은 돈을 성과급 파티에 썼다는 게 현재 은행권에 쏟아진 비난의 핵심이다.

하지만 대출금리를 올린 건 일단 시중은행이 아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대출 좀 줄이려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게 시발점이다.

더 멀리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전세계적인 금융 주도 성장 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이다.

저금리로 특징지어지는 금융 주도 성장 시대의 핵심은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간의 경제적 격차 확대였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자산을 늘림으로써 소득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려다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역풍을 맞고 말았다.

그래서 은행은 이 거품 형성과 붕괴 사이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해 폭리를 누렸는가?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2020년 1.42%에서 2021년 1.45%, 2022년 1.63%(3분기)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올린 수익의 상당 부분은 요구불예금에서 비롯됐다는 단순 팩트를 무시해선 안된다. 대내외 증시가 급격히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유동자금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으로 몰리는 건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요구불예금 금리가 워낙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의 수익은 자연스럽게 불어난 셈이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수익 증가분도 없진 않았을 것이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20년 1.78%p에서 2021년 1.81%p, 지난해 2.13%p(3분기)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예대마진에 근거한 수익 창출이 은행 비즈니스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예금 이자가 낮은 건 은행이 현금 보관 서비스와 함께 지급 결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대출 이자가 높은 건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개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상시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선 위험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게 가

산금리다.

은행의 고객들은 불경기 때 부실대출 확대에 따른 손실을 자신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경기가 불황에 빠지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부실 대출이 늘어날 때 손실은 온전히 은행의 몫이다.

만약 은행의 대출 자산이 부실화해 대손 비용이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 영업이익 수준을 초과하면 자본금이 잠식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용이 위협받게 되고 특정 은행의 건전성 위험 신호는 해당 국가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기도 하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에 은행이 수익을 불리고 체력을 키우는 걸 고까운 시선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이뤄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연 돼왔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그나마 경기가 좋았던 때 이뤄졌던 것 중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의 규모가 향후 경기 침체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모든 게 은행 탓' 금융당국, 무엇을 노리나?

은행이 고객 자산을 이용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한다면 이는 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은행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의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출금리 올라가는 걸 은행의 탓으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국내에 은행 숫자가 적어서 대출금리가 높다는 식의 논리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대출금리 상승과 은행별로 원래부터 존재했던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국내 은행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으로 이어지는지 그 논리의 연결고리가 정말 궁금하다.

은행에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

은행들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데 불특정 다수에게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특권이다.

다만 그동안에도 국내 금융시장에 문제만 터졌다 하면 구원투수로 등장해 공공재 역할을 해왔던 게 은행들이다.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며 수익률 기계를 변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편집 박예나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2.64%, 유로화 +0.18%, 엔화 -2.04%, 위안화 역내 -0.96%, 달러지수 +0.30%
- 국내 주가: 코스피 -0.75%, 코스닥 +0.41%
- 미국 주가: 다우존스 -0.13%, 나스닥 +0.59%, S&P500 -0.28%, 러셀2000 +1.44%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24.1 bps, 10년 +25.9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1.2 bps
- 미국 국채: 2년 +11.0 bps, 10년 +8.5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79.5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4.24%, 금 선물 -1.26%, 레피니티브/코어커머디티CRB지수 -1.78%